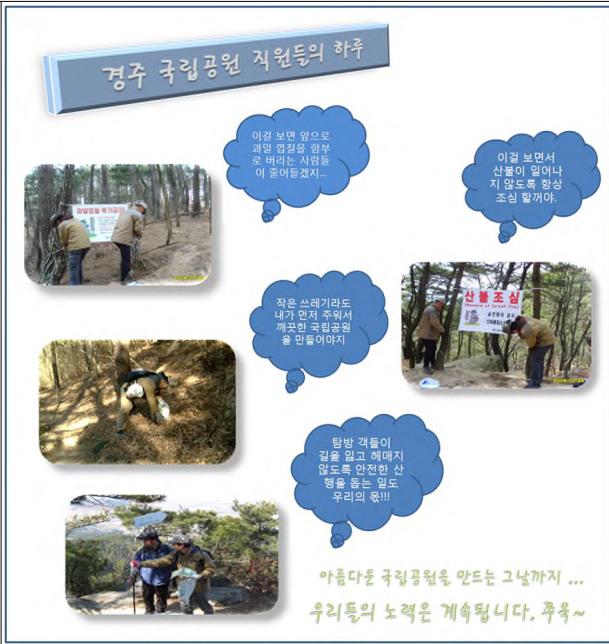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거점해설(포석정~금오정 전망대)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일정 및 참여자 소개	<p>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맑아진 요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 포석정부터 금오정까지 해설을 맡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 ○○○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고 관찰하실 ○○○입니다.</p>
국립공원 및 경주 소개	<p>혹시 서 계시는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가지(포석정,경주,산,남산)이야기가 나온다)왜 이곳이 국립공원일까요?(...) 물론 집, 도시 주위에도 여러형태의 공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뛰어나며 여러 환경문제로 인해 멸종되어 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p> <p>이러한 국립공원이 전국에 21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국립공원이고 이곳 경주국립공원은 2번째로 지정되었답니다. <b>경주국립공원</b>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에요. 찬란한 불교문화가 있는 불국사 석굴암을 품에 안은 토함산!! 야외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을 비롯한 8개 지구가 있으며, 국보11점, 보물23점, 사적 등 총 66건의 문화재와 1,200여종의 동식물이 천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후 경주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국가 관리체제로 전환되어 현재 <b>국립공원 관리공단</b>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p> <p>교재) 경주국립공원 직원들의 하루</p>



**남산소개**

포석정을 소개하기 이전에 경주국립공원에 속해있는 남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서라벌의 남쪽에 솟았다하여 ‘남산’이라 불리는 남산은 고위봉(494m)과 금오봉(468m)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누워 골짜기가 깊고 능선이 변화무쌍합니다. 산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어느 방향 어느 위치, 어떤 계절에 보느냐에 따라 산의 표정이 무궁무진합니다. 남산은 지형적으로 보아도 큰 산이지만, ‘남산이 크다’는 말은 결코 남산의 생김새에 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 문화예술, 종교적 측면에 기대 보아도 남산은 아주 가치 있는 큰 산입니다.

현재 남산에는 절터 147곳, 불상 118기, 탑 96기, 석등 22기, 연화대좌 19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에 불상과 석탑, 절터가 집중된 경우는 경주 남산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산 전체가 말 그대로 땅위에 내려온 ‘부처의 세상’이요, ‘노천 박물관’이라 할 수 있어요

**과학적 산물인 포석정 유래**

포석정은 전복껍데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라왕실에서 주연을 베풀며 휴식터로 사용하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포석정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삼국유사에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향연을 베풀었을 때 남산신이 임금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여러 신하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포석정이 왕실 사람들의 향락을 위한 곳으로 알려져 왔어요. 근래 포석정 발굴 조사 중 砲石(포석)이라 새겨진 기와가 나와 포석정 주변에 기와를 사용했던 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답니다.

이곳에서는 옛날 귀족들이나 왕이 술잔을 띄워놓고 시도 짓고, 춤과 술잔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술잔이 돌아올 때까지 시를 짓지 못하면 신하는 별주로 3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 짓는 일이 정치와 외교를 위한 필수적 덕목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기도 했어요.

또한, 포석정은 신라 사람들의 슬픈 자취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신라 말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 왔을 때 신라의 (55대) 경애왕이 이곳에서 죽었기 때문

**과학적 산물인 포석정**

	<p>입니다. 이 슬픈 신라의 마지막 역사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시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p> <p><b>포석정에 담겨진 과학적 신비</b></p> <p>포석정은 신라의 역사를 끝맺은 곳이기도 하지만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상곡수라는 말을 알고 있으세요? 삼진날 굽이도는 물에 술잔을 띄어두고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는 놀이를 말합니다. 유상곡수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널리 행해졌는데요, 포석정은 중국과 일본의 것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석정은 수로를 자세히 보시면 구불구불하고 그 폭이 일정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불규칙성이 물의 흐름을 다양하게 만들어 술잔이 물의 흐름과 반대로 회전하는 ‘회돌이 현상’을 일으킨답니다. 물이 굽이굽이 돌지 않고 그대로 흐르면 2~3분만에 돌아오므로 그 짧은 시간에 시를 지을 수 없어요, 물길을 굴곡지게 한 것은 시를 제대로 짓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수로와 물의 흐름이 불규칙해 잔의 무게, 술의 양, 술잔을 놓는 위치에 따라 그 흐르는 속도와 멈추는 지점이 변하게 되어 시를 짓는 재미를 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신라인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p>
<p><b>스트레칭</b></p>	<p>자, 그럼 본격적인 산행을 하면서 남산의 동식물을 만나기 전에 다 같이 몸을 좀 풀어봅시다.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제. 다들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 하나, 둘, 셋. 다음 각자 허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보고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하나, 둘, 셋. 이번엔 왼쪽 무릎을 누르면서 하나, 둘, 셋.(같이 시범을 보이면서 카운터를 센다)</p> <p>이제 출발하겠습니다.</p>
<p><b>탐방 시 유의점</b></p>	<p>오늘 여러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숲속에 살고 있는 꽃이나 나무, 곤충, 새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입니다.</p> <p>여기는 풀, 나무. 곤충, 새들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숲 속 친구들의 집에 놀러 온 거죠. 그럼 친구의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 주세요.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의 나무를 꺾고, 작은 풀들을 죽이며 여기저기 길이 나면 동식물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됩니다.</p> <p>여기서 퀴즈 하나! O/X 퀴즈를 낼게요. ‘과일껍질은 비료가 되기 때문에 산에 버려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머리위에 그려보세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는 화학성분을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과일껍질을 버려둔다고 저절로 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껍질의 영양성분으로 동물들이 불임이 될 위험도 있고,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답니다. 문제 둘 ‘산 정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야호’를 외쳐도 된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좀 전에 산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집과 같은 곳이라고 했죠. 우리가 ‘야호’하고 소리치면 동물들이 깜짝 놀라겠죠. 산 정상에서 ‘야호’는 이제 그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나뭇가지를 꺾거나 풀을 뽑으면 나뭇가지랑 풀이 아파하겠죠? 또,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생명이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는 버리지 마시고요 각자 집으로 되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제 숲속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해볼까요</p>

	<p>교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91 250 837 788"> </div> <div data-bbox="853 250 1396 788"> </div> </div>
<p><b>숲이 주는 이로운</b></p>	<p>자~ 산을 오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쉬어 봅시다. 기분이 상쾌해 지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나무를 포함한 식물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자기방어를 위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데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시간으로는 오전에 가장 많이 방출되고 여기에 많이 있는 소나무가 가장 강력하답니다. 대부분 공원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많이 산에 오르시죠? 다 이런 이유에서 랍니다. 식물은 자기방어화학물질을 방출하지만 이것을 흡수한 사람은 몸의 해로운 물질이 걸러내어져 몸이 상쾌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p>
<p><b>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생태계</b></p>	<p><b>소나무</b></p> <p>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남산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습니다. 애국가 2절에도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소나무 또한 철갑을 두른 듯 나무껍질이 상당히 두껍게 보이죠? 저것을 나무 표피라고 합니다. 소나무의 표피는 여기 보이는 소나무는 잎이 두개입니다. 소나무를 종류별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외래종인 리기다소나무와 우리나라 종인 소나무로 구분 짓습니다. 이렇게(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의 잎 샘플 혹은 사진) 잎이 2개가 붙은 것은 소나무, 3개가 붙은 것은 외래종인 리기다소나무, 5개가 붙은 것은 수정과에 띄우는 잣을 생산하는 잣나무입니다. 앞으로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소나무는 잎은 송편을 찢 때 사용하고, 꽃가루는 송화가루라고 음식 등에 주로 쓰이며, 목재는 건축이나 휴지로 쓰이고, 끈적이는 송진마저도 스포츠경기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선수들이 손에 바른답니다. 그만큼 쓰임이 다양하여 유용한 나무죠?</p> <p>여기는 유난히 솔방울이 많이 보입니다. 솔방울은 꼭 수류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솔방울은 다람쥐나 청솔모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흔히 다람쥐는 도토리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솔방울도 갇아 먹는답니다. 솔방울은 소나무의 열매입니다. 제가 조금 전 솔방울이 수류탄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산에 불이 나서 이 솔방울에 불이 붙으면 솔방울이 작게 조각조각 터진답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불씨가 날리고 불이 더욱 확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을 끄</p>

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위험한 흥기가 됩니다. 그러니 숲 속에서는 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죠?

참, 여긴 유난히 솔방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방울이 소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예, 이렇게 솔방울이 많은 건 이 나무가 종족보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다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많이 만들어 자신의 자식을 많이 만들려는 것이죠. 소나무는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답니다. 보시듯 소나무 주변에는 솔잎만 떨어져 있을 뿐 다른 식물들이 잘 없습니다. 소나무 때문에 흙이 산성화 되어 다른 식물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식물들이 자신을 지키려는 일종의 자기방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탱자나무**

이 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 가을(9~10월)에는 노란 탱자열매가 열리지만 먹을 수 없으니 드시진 마세요. 어떤 분은 굴인 줄 알고 드셨다던데 이 탱자라는 것은 겉에 보송보송한 털이 있습니다.(탱자사진 보여줌) 보기 좋고 냄새가 좋다고 야생 식물을 함부로 섭취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만 탱자는 습진 등의 한약재로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탱자나무의 가지 끝을 보세요. 가시가 많죠? 이러한 가시들이 많아 예전에는 집의 울타리 등 지금의 철조망의 역할을 하였답니다. 과수원 울타리에 탱자나무를 심어 손쉽게 과일을 가져가지 못하게 방범용으로 사용도 하고 옛날 전란을 계기로 성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성 밑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심어 적군이 손쉽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식물이 이런 유익함 또는 이용가치를 가지는 것이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을 알고 아끼려는 마음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재)

탕자~ 탕자~ 논다고 하여 탕자나무



**물오리나무**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물오리나무입니다. 왜 이름이 물오리일까요? 예, 물오리에서 ‘물’은 생각 하시는 것처럼 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리’인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를 움직이시고 가시더라도 도로엔 이정표가 다 있죠? 앞으로 남산을 몇 Km가 더 가야할지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이정표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무엇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오리나무가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게 생긴 나무를 5리마다 한그루씩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두 그루 지나게 되면 10리를 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오리나무’가 이름으로 되었답니다. 재미있고도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나무이름이죠? 특히 이 나무의 경우 햇빛은 산에 비나 눈이 많이 와 흠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고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말이 되겠죠? 더욱이 길게 늘어진 것이 수컷(남자)이고 작고 진한 색깔이 암컷(여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그루가 남자와 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수컷(수꽃)을 건드리면 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이것이 바로 옆의 암컷(암꽃)과 만나 새로운 나무가 생겨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바람이나 곤충들을 이용해 연애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꽃은 모두가 진달래나 장미, 국화 등과 같이 보기 좋고 예쁘게만 생겼다고 생각하셨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도 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식물의 꽃들도 저마다 모양과 성격, 향기 등이 다르답니다.

**진달래**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서 제가 노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역시 진달래가 피니 이젠 진짜 봄이 온 것 같죠? 이런 화사한 색깔이 봄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철쭉사진) 진달래 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비슷하지만 이것(철쭉사진)은 철쭉이라고 진달래보다 좀 크답니다. 또 철쭉은 좀 끈적거리고 좀 짙은 색이죠. 무엇보다 진달래는 앞보다 꽃이 먼저 피는 반면 철쭉은 진달래가 피고, 지고 난 후 비로소 앞이 나고 꽃이 피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는 혹은 같은 시기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식물들도 사람처럼 생김새는 비슷해도 다들 저마다의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생강나무**

여러분, 제가 봄을 느낄 수 있는 진달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산의 숲 속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생강나무입니다. 가끔 도시부근에서 보실 수 있는 산수유와 모양이 비슷해 헷갈리기도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생강나무는 생강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강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위한 것이므로 제가 꽃을 하나 따서 향기를 맡아보도록 하죠. 숲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꽃이 피기 때문에 가장 부지런한 나무란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 무스나 헤어왁스 같은 것이 없던 시절 이 생강나무의 꽃을 따서 말려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발랐습니다. 물론 동백나무의 기름을 바르기도 하였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생강나무가 흔하고 값이 싼기에 더욱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국수나무**

여러분, 지금까지 눈에 띄고 큰 나무들을 주로 보았는데 숲에는 크고 화려한 나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무는 국수나무인데 이러한 작은 풀이나 나무도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큰 나무들은 동물들이 잎이나 꽃을 먹기 힘들겠죠? 이러한 키 작은 나무들이 있기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숲이 형성되고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 국수나무의 경우 가지를 잘라 이렇게(실제로 보여주) 가운데 수를 밀어 올리면 흰 국수가락처럼 밀려 나와서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느티나무**

이른 봄 잎이 무성히 자라기 전에 잎을 보지 않고도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무의 표피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소나무와 달리 표피가 아주 매끈하죠? 마을 어귀에 흔히 보이는 느티나무입니다. 보통 마을 어귀나 중심에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의 평상위에서 동네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시기도 하시죠. 이 나무는 잎이 많아 좋은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정자나무로 많이 심어지고 여름철 그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보존만 잘한다면 천년이상 오래 사는 나무로 천연기념물이 된 것도 전국에 14그루나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를 아끼고 보호하여 천연기념물이 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길이 좀 가파르답니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오르겠습니다. 그럼 정상까지 멀지 않으니 숲을 느끼며 가겠습니다.

**참나무**

흔히들 참나무라 하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은

진짜란 뜻이죠. 추운 겨울 참나무 목재로 불을 때면 오래 타고, 타고 남은 숯을 화로의 재속에 묻어두면 불기가 오래가고, 가을에는 식량 대용인 도토리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 나무를 좋아하며 진짜 나무라 해서 참나무라고 불렀답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들인데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르며,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도토리를 만들어요. 먼저 신갈나무 잎은 옛날 나무꾼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는데, 숲 한 가운데서 짙은 바닥이 해지면 이 나무의 잎을 깔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갈나무, 즉 '신을 간다.' 라는 뜻을 지닌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떡을 쌀만큼 넓은 잎을 가진 참나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떡갈나무도 참나무의 일종이에요. 실제로 떡갈나무잎으로 떡을 싸 놓으면 떡이 오래 가서 예로부터 떡갈나무 잎으로 떡을 싸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떡갈나무 잎에는 방부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다음으로 상수리나무는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피난을 갔을 때 이 나무 열매로 목을 썬어서 올렸는데 대궐에 돌아와서도 이 음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상에 올랐다고 하여 상수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코르크층이 잘 발달된 수피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누르면 폭신폭신했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굴참나무입니다. 병뚜껑 등 코르크 제품을 만들 때 이용되며 이 나무껍질로 만든 지붕을 굴피 지붕이라고 합니다. 갈참나무는 잎이 가을 늦게까지 달려있고 단풍의 색깔도 황갈색이라서 눈에 잘 띄므로 '가을참나무'로 부르던 것이 갈참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잎을 가진 "졸병 참나무"라 하여 졸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의 맛은 다른 어떤 나무의 도토리로 만든 목보다 맛있답니다.



■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은 무척 바빠집니다. 왜 일까요? 겨울이 되면 숲 속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들인데 통틀어 참나무라고 부르며,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도토리를 만들어요. 그 가운데 일부는 새나 다람쥐의 먹이가 되고 나머지는 어린 참나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 도토리는 크기가 커서 다람쥐가 몇 개만



	<p>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 다람쥐들은 길쭉한 모양을 한 졸참나무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는답니다. 목 맛도 졸참나무 도토리로 쏜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주운 도토리를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기는데요, 비밀 장소를 정하면, 낙엽을 헤치고 땅에 작은 구멍이를 파고 몇 개씩 분산해서 넣어둡니다. 한 장소에 모두 넣어 두었다가 도둑이라도 맞을 경우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구멍이에 잘 넣은 다음에는 이끼나 낙엽으로 덮어 꼼꼼히 숨기고, 자신만이 아는 표시를 해둡니다. 떨어진 도토리는 낙엽이 그 위를 이불처럼 덮어 감추어 주고, 도토리는 다음 해 봄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긴 겨울이 지나 땅 온도가 5℃를 넘고 수분이 있는 환경이 되면, 도토리는 뿌리를 내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15cm 정도나 자란답니다. 그렇게 다람쥐가 숨기고 잊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p> <p><b>숨방망이꽃</b> 거미줄 같은 솜털이 뽀송뽀송한 것이 매력덩어리이죠? 거미줄 같은 흰털이 덮여 있어 솜방망이라고 불리며, 5월에 노란색 꽃이 피요. 양지(따뜻한 곳) 바른 곳을 좋아 하여 따뜻한 무덤가에 많이 퍼서 그런지 꽃말은 할아버지 꽃이며 그리움입니다.</p>
<p><b>자연의 소리 느끼기</b></p>	<p>눈을 감고 조용히 숲속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요. 눈을 감고 숲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시간을 주고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풀 냄새등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나마 같이 인사해보세요. 노래하는 숲을 아시나요? 숲에는 새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박새와 곤줄박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산행하는 도중에 새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다가가 관찰해 봅시다.</p>
<p><b>숲 속의 귀염둥이 다람쥐와 푸른 쥐 청설모</b></p>	<p>■ 숲속의 귀염둥이 다람쥐 다람쥐는 쥐목 다람쥐과의 동물로 주로 잎사귀가 넓은 참나무가 숲을 이룬 활엽수림이나 바위가 많은 돌담 같은 곳에 삽니다. 낮에만 활동하구요, 도토리나 밤 등을 즐겨 먹는답니다. 앙증맞은 체구의 다람쥐는 몸길기와 맞먹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람쥐의 긴 꼬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다람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잠잘 때 몸을 감싸 체온을 유지해 주는 보온 역할까지 한답니다. 눈은 크고 검은색이며, 볼에 주머니가 있어 입안에 먹이를 잔뜩 넣고 운반하고 있지요.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데요 땅 속 깊이 긴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요.</p> <p>■ 청설모는 옷이 두 벌이래요 청설모와 다람쥐는 서로 원수가 아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람쥐는 땅 속에 집을 짓고 주로 땅에서 도토리를 먹고 살며, 청설모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잤과 밤을 먹고 살아 다람쥐와 사는 공간이 중복되지 않아요. 청설모는 다람쥐와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에도 다닙니다. 어떻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도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털갈이지요. 가을 청설모는 추울 때는 새까만 색의 털을 뒤집어썼다가 무더운 여름이 오면 흐릿한 회갈색의 털로 갈아입어요. 청설모는 외출복이 두벌인 셈이죠.</p>
<p><b>개구리와 도롱뇽이야기</b></p>	<p>개구리와 도롱뇽은 어릴 때에는 물속에서 살며 아가미로 호흡을 하다가 어른이 되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폐로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곳에서 산다하여 양서류하고 하는데, 이들은 봄에 물 속에 알을 낳고, 여름이 되면 뚝이나 개울 주변과 같은 습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안전한 바위</p>

	<p>틈이나 땅 속, 물 속에서 거울잠을 잡니다.</p>
<p><b>남산의 소중한 문화재</b></p>	<p>남산은 절이 147곳, 돌로 만든 부처님이 118분이나 나타났다고 했던 말 생각나나요? 그럼 왜 이렇게 남산에 많은 불교 문화재가 있는 것일까요? 삼국 중 신라에 불교가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그 믿음은 고구려나 백제에 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신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원래 부처님이 서라벌에 살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라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작게는 가족의 건강에서 크게는 나라 일까지 모두 부처님에게 빌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탐이나 불상이 남산에 가득하게 된 것일 거예요. 남산에 있는 역사문화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는 증거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남산의 불상 앞에는 현재까지도 찾아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산의 불상과 탐은 죽은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남산의 불교 문화재는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소중한 문화재인 것입니다.</p> <p>■ 경주 배리 윤을곡 마애불좌상</p> <p>그럼 윤을곡 마애불좌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을곡 마애불좌상은 배치된 모습이 독특하며 높이 109.6m 정도 되는 가운데 본존불의 광배 왼쪽에 ‘태화구년을묘’라는 글자가 새겨 있어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마애불입니다. 윤을곡 마애불좌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암석을 이용하여 신라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아 정성껏 부처님을 조각했다는 것인데요. 고려시대까지 귀족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진 사찰이 일반 서민들이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었기에 다수의 신라백성들은 가까운 산에 올라 돌에다가 신앙심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 불교자체가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을 가정하여 산 자체가 서라벌의 방어의 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불교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을곡 마애불좌상이 새겨져 있는 바위에는 모두 세분의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바위 면에는 왼쪽에 석가여래 좌상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약사여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석가여래는 현세의 부처님으로 꽃잎마다 보상으로 장식된 두 겹의 연꽃 위에 앉아계시면서 설법을 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약사여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요. 양련 대좌 위에 앉아계시며 왼손에 약그릇을 들어 무릎위에 놓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옛 신라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각각의 부처님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소원을 빌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쪽을 향해 있으면서 앉아계시는 여래좌상은 세 불상 중에서 가장 조각 솜씨가 떨어집니다.</p> <p>■ 부엉골 여래좌상</p> <p>이곳까지 오르시느라 힘드셨죠? 저기 보이는 무덤 바로 밑에 부엉골 여래좌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벽에다가 부처님을 새겼는데요. 이 바위는 석양이 되면 금빛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그 빛나는 부분에 여래 좌상을 조각하였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으로 된 처마가 있어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돌로 이루어진 처마가 눈, 비를 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자연석으로 된 법당에 앉아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우뚝 솟은 봉우리에 능름한 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기 저곳이 바로 부흥사의 바로 앞에 솟은 능비봉이란 봉우리인데, 신라인들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도록 설치한 오층석탑이 능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석양이면 황금빛으로 변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다시 이곳을 찾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끝맺음</b></p>	<p>자~ 여러분 오늘 숲 속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 봤죠?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오늘 숲 속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배웠잖아요. 앞으로 보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이름도 불러주기로 해요.</p> <p>‘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곳이나 다른 곳을 갈 때에도 친구들도 이 숲을 지키는데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자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라며 내려가실 때에도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경주국립공원사무소 OOO였습니다.</p>
<p>5/45</p>	